

# 영암군, 민속씨름단 존폐 여부 연말까지 결정

### ‘군정 홍보’ vs ‘혈세낭비’ 평가 엇갈리며 지역 내 의견 분분 공론화위원회 구성...설문조사·군민참여단 통해 의견수렴

영암군이 민속씨름단의 존폐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정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갖고 핵심의제를 선정하는 등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군정홍보’와 ‘혈세낭비’ 등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그동안 존폐 여부를 두고 지역 내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지난 7월 취임한 우승희 영암군수가 민속씨름단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갈등관리 분야 박선우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이경순 갈등조정센터 상임이사, 조사통계 분야 정기영 세한대 교수·김명진 전북과대학 교수, 체육분야 김옥주 조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5명과

김강식 영암군 사회단체연합회장, 이용에 영암군 이장단협의회장 등 지역사회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선을 통해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공론화 전문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이 공론화 추진 배경과 위원회 설립 배경 및 목표, 운영방안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핵심제안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존치 여부,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의 효과,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선정됐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표본 수는 500명으로 하고, 군민참여단은 1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32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설문조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군민(오프라인)과 향우(온라인)를 대상으로 씨름단에 대한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공론화위원회.

인식조사와 군민참여단 참여 의향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민참여단은 숙의 워크숍과 2번의 토론회 등을 거쳐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

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모아 씨름단의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제출받아 올해 말 영암군민속씨름단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시, 근대역사거리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시행

목포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유달동·만호동의 근대역사거리의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해안로173번길(근대역사1관→여객선터미널 인근, L=500m), ▶해안로163번길(신안교육지원청→초원골드맨션, L=300m)을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해안로173번길의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를 시범 운영했고,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근대역사유산이 밀집된 이 구간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4억원 포함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가변주차는 매월 15일 주기로 운영되며, 일방통행 시행으로 시내버스 7번과 60번은 노선이 변경된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에 7번은 노선이 변경됐는데 60번은 12일부터 7번과 동일하게 노선을 운영한다.

목포=기동채본부



# 신안군 농업용 중장비 면허증 수여식 개최

### 3톤미만굴착기·지게차·농업용드론 자격 취득 지원

신안군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농업용 중장비 신규 면허 취득자 207명에 대한 면허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농업용 중장비(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착기) 면허는 조작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법규 교육 등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 2일간 진행하여 수료하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조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조종사 자격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 기관에서 총 3주간 이

론, 모의비행 및 실기시험 후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신안군은 농업기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농업용 중장비 면허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취득비의 50%를 지원하여 추진한 자격 취득으로 현재까지 1,000여명의 군민이 면허증을 취득했으며, 향후 임대 농기계의 활용도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안=이택주기자

# 함평군, 4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함평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4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청 소속 현업 근로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대책 및 심폐소생술 등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현업업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 6시간씩 안전보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은 오는 1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무안군, 장애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지도점검

무안군은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동절기 안전점검과 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관리와 투명한 시설운영을 확보해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포함 총 8개소이며 각 시설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여부 점검 등 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가입 여부와 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인력 확보, 건축물 및 소방 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을,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광군, 2022년 모범음식점 32개소 지정...지정증 교부

영광군은 지난 8일 영광실내수영장 2층 다목적실에서 ‘2022년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정증 교부식에는 강종만 군수를 비롯해 모범음식점 영업주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음식점에 제지정 된 27개소와 신규로 5개소가 지정증을 받았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와 함께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부담 및 각종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강종만 군수는 “잔반을 재사용 하지 않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며, “심각한 물부족 사태에 물절약 실천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